

통데분 기말 팀플 데이터

1. “응급의료 자원은 어디에서 더 부족할까?”

1. 시도(또는 시군구)별 인구수와 응급의료기관·응급병상 수를 이용해 어느 지역에 응급의료 자원이 부족한지 구하기
 - A. 귀무가설: 모든 지역에 응급의료 자원은 인구수 대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.
 - B. 대립가설: 적어도 한 지역은 응급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→ 사후 검정으로 찾기
 2. 65세 이상 인구만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기
 - A. 귀무가설: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해도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분포는 차이가 없다.
 - B. 대립가설: 고령 인구 비율을 반영하면 일부 지역의 부족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.
 3. 최근 수년간 119 이송 건수/응급실 내원 환자 수와 응급자원 변화를 회귀분석하여 “앞으로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큰 지역” 찾기
 - A. 연도별 응급실 내원 환자 수, 119 이송 건수 등을 이용해 회귀 진행, 예측치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 찾기
- 데이터
 - 시도·시군구별 인구 및 연령별 인구 현황 <https://jumin.mois.go.kr/ageStatMonth.do>
 - 응급의료기관·응급실 병상 수 등 의료기관 현황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sso=ok&returnurl=https%3A%2F%2Fkosis.kr%3A443%2FstatHtml%2FstatHtml.do%3Fmode%3D%26conn_path%

2. “분만·소아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어디에서 더 취약할까?”

1. 지역별 출생아 수와 분만 가능 의료기관(산부인과·분만실) 수를 이용해 “분만 취약 지역” 찾기
 - A. 귀무가설: 모든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은 출생아 수 대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.
 - B. 대립가설: 적어도 한 지역은 분만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.
 2. 0~14세 인구수와 소아과(외래 진료 가능기관) 수를 이용해 “소아 진료 취약 지역” 찾기
 - A. 귀무가설: 소아과 의료기관은 아동 인구수 대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.
 - B. 대립가설: 적어도 한 지역은 소아과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.
 3. 분만·소아 진료 이용량(입원·외래 진료 건수)을 회귀분석하여, 현재 인프라 대비 이용량이 과도한 지역을 찾아 “전공의 충원·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” 제안하기
 - A. 연도별 진료 건수와 의료기관 수를 이용해 회귀 진행, 예측치보다 이용량이 큰 지역을 필수의료 부담 지역으로 정의
- 데이터
 - 지역별 출생아 수·연령별 인구 <https://jumin.mois.go.kr/>
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시군구별 연령군별 분만 통계<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118813/fileData.do>
 - 진료과목·연령대별 의료이용통계
<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129861/fileData.do?recommendDataYn=Y>